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탁환

이란 페르세폴리스로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를 주관한 여행사에서 보내 주...

쉬라즈로 이동했다. 호텔 직원도 현지 안 내인 페르시아어도 모두 여성이었다.

문화콘텐츠의 힘

정을 지어보이며 누가 그런 영터리 정보를 주었느냐고 따졌다.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란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두 마리 용이었으며 이슬람권 국가 중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가장 많으며 철저하게 일부일체제를 따르는 국가라고 했다.

페르세폴리스는 당대 세계 문화가 하나로 뭉치는 융광로였다. 그리스 열주식(케리스트) 기둥 건축양식, 이집트 석조 건축

양식, 바빌로니아 벽돌 축조 양식, 인도의 지붕 건축양식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높이 솟은 돌기둥과 거대한 문도 웅장했지만 벽에 새긴 조각들이 더 눈길을 끌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이나 그리스와의 전쟁을 다룬 영화에서 페르시아

는 하나같이 미개하고 힘만 센 나라로 묘사되었다. 할리우드 영화 '300'에 등장하는 영웅적인 스파르타인과 기괴하기 짝이 없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를 비교해 보라!

그리고 경차 프라이드가 더욱 이란인들의 사랑을 받는 데 일조했다.

문화콘텐츠의 힘은 무한하다. '대장금'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 문명의 본산지 이란에서 사랑받을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4월 22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페르시아 특별전이 열린다. 실크로드 문화 교류사에서 이탈리아 로마는 서방의 출발점이었다고 페르시아는 실크로드의 허브였으며 신라 경주(담대 서라벌)는 동방 실크로드의 마지막 기착지였다.

〈소설가·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총선 40%대 부동층 기권만은 말아야

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최대 변수가 부동층의 함배라고 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은 최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동층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각 정당에 있다. 이번 총선은 정책·검증·열기가 없는 '3무(無) 선거'라고 한다. 정당의 후보가 능력공천으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고 정책 대결이나 대형 이슈도 없어 선거 열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선거구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총선·전남의 특이한 정치 지형도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에서는 그런대로 선거 열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 선거구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문제는 늘어난 부동층이 투표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50%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유권자의 선택은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참여하는 각종 선거를 통해 발전해 왔다. 정치권의 행태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염증이 나더라도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것보다는 낫다.

선거관은 견제론과 안정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힘을 실어 줄 것인가는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 부동층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도시 광주' 만들기 적극 참여하자

광주시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 관심이 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평균 2.63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2006년 기준) 시키고 있다. 이를 나무심기를 통해 상쇄하기 위해서는 약 3천㎡ 면적에 어린 소나무 947그루를 심어야 한다.

지구 온난화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회의의 '온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가 온난화로 인해 치러야 하는 비용은 9조6천억 달러로 1.2차 세계 대전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세계에서 수억 명이 굶주림과 물부족, 홍수 등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이 지금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서는 온난화를 막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저탄소 도시 광주'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문,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필자가 한국에 있을 당시의 한국의 사들은 유독 교만하고 거만한 집단이었다. 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자부하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거나 자기의 기존 지식과 다른 이론은 무조건 배척하고 무시하는 독선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인양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의학의 발달로 과거에 정설로 인정받고 있었던 치료법이 오히려 정반대로 환자에게 해롭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만한 의사

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LA에 와서 느낀 것은 서양의 사들은 남의 의견을 잘 경청하며 자기의 의견과는 같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아직 이론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공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상 경험상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다.

필자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한의학에 대한 거부 반응적 태도가 몸에 배어있지만 필자의 그런 태도가 과학적·의학 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선입감 때문임을 지금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외래종 '뉴트리아' 급속 확산... 환경 보호대책 필요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등 외래종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은 '꿀꿀이 쥐'나 '방울토끼'라는 식으로 랜 난데없는 '뉴트리아(늘누리리)'라는 동물이 실체라고 있으니 참 걱정이스럽다.

전남지역 농촌 곳곳에서도 뉴트리아의 서식처가 발견되고 있다. 이놈은 갈도양은 거의 고슴도치와 똑같이 생겼다. 아주 덩치가 큰 고슴도치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듯하게 유사하다. 번식력도 아주 강하다고 한다.

기고

윤이중

인권과 예향 그리고 맛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빛고를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이라는 희망찬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다. 따라서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2013년 하계U대회 유치의 성공은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문화수도 건설과 U대회 유치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곳 광주에서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우의를 다지고 국가간 상호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U대회 광주 유치는 문화수도의 위상을 국제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수도 건설과 U대회 유치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11일 동안 축구, 육상 등 13개 종목을 겨룸으로써 1조5천여 명의 경제적 효과와 3만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또한 크다고 하였다.

문화수도 건설과 U대회 유치

라고 통보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들에게 광주가 U대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도시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유치는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에서 좋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먼지투성이 교실에 진공청소기 제공하자

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감염률이 아주 높다고 한다. 그 이유가 아이들이 입시준비에 신경쓰다가 건강관리를 게을리해서라고 말한다.

문화수도 건설과 U대회 유치

아이들 40여명이 온종일 생활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환기시키며 환경에 신경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먼지들을 쓸고 청소할 수 있는 도구가 빗자루와 걸레 뿐이다. 빗자루나 걸레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실 안에서 늘 떠다니는 먼지를 제거하는데는 무리다.

無等鼓

소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영양소다. 사람의 혈액 속 염분 농도는 0.9%로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각종 질병이 유발된다.

천일염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계란도 소금을 쓰는 이유는 맛있기 때문이다. 비결은 낮은 염도에 있다. 정제염은 염도가 90% 이상인 반면 계란도 소금은 83%다. 염도가 낮은 만큼 삶음과 절임, 미네랄 함량은 높아 덜 짜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전남이 주산지인 천일염 산업을 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에 나설 경우 현재 1천억원 대인 천일염 시장이 5년 뒤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판매되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distribution info.